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4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5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III. 경영참고사항 6
1. 사업의 개요 6
가. 업계의 현황 6
나. 회사의 현황 12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5
□ 재무제표의 승인 15
□ 정관의 변경 60
□ 이사의 선임 64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66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66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68
가. 제출 개요 68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68
※ 참고사항 69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년 03월 08일

회 사 명 : 지니언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동 범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벌말로 66
(전 화)031-8084-9770
(홈페이지)http://www.genian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정 순 녀
(전 화)031-8084-977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6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조와 정관 제 22조에 의거 제 1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총회장 입장 전 '디지털온도계' 등의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로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1. 일시 : 2021년 03월 23일(화요일)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12 층 A-F 회의실(평촌역 하이필드)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및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 16 기(2020.01.01~2020.12.31) 개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 명)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 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 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조 제 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년 3월 13일 9시 ~2021년 3월 22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 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 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기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 (www.genians.c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십시오.

2021년 03월 08일
지니언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동범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A (출석률: %)	B (출석률: %)	C (출석률: %)	D (출석률: %)
			찬 반 여 부			
-	-	-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	-	-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2015년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보보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을 이용해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가 속한 "정보보호산업"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전 산업이 IT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환경에서 "정보보호산업"은 비즈니스의 기본이자 필수적인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부터 랜섬웨어와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안공격이 감행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워너크라이(WannaCry)를 시작으로 개인과 기업을 목표로 한 공격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랜섬웨어와 지능형지속위협(APT)이 결합된 표적공격에 피해를 입은 모 호스팅 기업은 공격자에게 데이터 복구를 위해 13억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지불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2019년에도 지속되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중국의 바이낸스가 약 47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으며 국내역시 빗썸이 140억원, 업비트가 약 580억원의 암호화폐를 탈취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안의 취약성이 이제 기업을 존폐의 기로에 서게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사무실을 포함한 일반 IT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18년 3월 애플의 차기 아이폰에 탑재되는 AP(Application Processor)를 독점생산하는 대만의 TSMC가 워너크라이 변종에 감염되어 생산이 중단되고 매출 및 손익에 피해를 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월에는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자인 노르웨이 대기업인 노르스크 하이드로(Norsk Hydro)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미국과 유럽의 IT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생산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IT 환경에서 발생한 위협이 제조 및 설비분야에 까지 확대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영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해 새로운 양상을 보이는 보안위협은 이제 사회 전반의 변화, IT 환경의 진화 및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보호산업은 이러한 위협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해야하므로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고객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정보보호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성장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	·국내 정보보안산업 규모는 2018년 3.3조 추산 전년 대비 6.3% 성장

	·향후 지능화된 보안위협 및 자동차・안전 등 타 분야 신규 보안이슈의 확대로 정보보안 시장 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방위 산업	·협의의 개념으로는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 주는 보안산업, 광의의 개념으로는 각종 테러와 보이지 않는 전쟁(사이버테러 및 정보화 전쟁) 으로부터 국가의 안위를 지켜주는 방위산업 ·정보보호산업은 밖으로는 금융기관의 IT보안 서비스, 국제범죄, 국제해커로 부터의 침입 차 단 등 국가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안으로는 주정차 차량감시 CCTV 등을 활용해 질서 확립 및 각종 범죄 예방 및 치안을 담당하는 방위산 업
차세대 고부가가치 미래지향 산업	·최근 국내 IT 산업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모바일 기기 시장 뿐만 아니라, 사물인 터넷(IoT)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변화, 정보 보안 및 무선통신망의 안전성 강화 필수

(출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발간, 2019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2) 산업의 성장성

사물인터넷(IoT) 및 클라우드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정보보호산업은 안정적인 사회를 운영하고, 비즈니스 기반을 유지하는 주요한 IT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예상 됩니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을 통해 누릴수 있는 접근성 확대,사회 투명성 강화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요소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킹, 사생활침해, 사이버 공격 등의 이슈로 이 같은 문제를해결하는데 당사가 속한 정보보호 관련 제품과 서비스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10대 핵심산업에 정보보호가 포함된 것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수 많은 센서, 기기 및 융합서비스가 연결되는 초연결 환경에서 5G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IoT보안등이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에 필수적인 분야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자료에서도 기업을 중심으로 보안산업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2018년 1월 발표한시장 전망보고서 "Forecast: Information Security, Worldwide, 2015-2021, 4Q17 Update"에서 2016-2021까지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약 8.1%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7년 약 890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2020년까지 약 1,12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15-2021 글로벌 정보보안 투자규모 *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CAGR (2016-2021)
정보보안 투자	75,672	82,225	89,130	96,669	104,460	112,735	121,574	8.1%

(출처: Gartner 발간, "Forecast: Information Security, Worldwide, 2015-2021, 4Q17 Updat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발표한 2019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정보보호산업 매출액은 총 10,557,237백만원으로 2018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이 중 정보보안 매출액은 2018년 3,082,926백만원에서 2019년 3,277,687백만원으로 6.3% 증가하였으며 물리보안 매출액은 2018년 7,034,918백만원에서 2019년 7,279,550백만원으로 3.6% 증가하였습니다.

구분	정보보안			물리보안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E)	2017년	2018년	2019년(E)	2017년	2018년	2019년(E)
매출액 (백만원)	2,744,940	3,082,926	3,277,687	6,840,822	7,034,918	7,279,550	9,585,762	10,117,844	10,557,237
성장률 (%)	12.3	6.3		2.8	3.5		5.6	4.3	

보안제품의 주 수요처인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랜섬웨어 등 지능형 악성위협 대응을 위한 보안투자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보안성 지속서비스 대가 현실화 기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IT 산업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모바일 기기 시장 뿐만 아니라 IoT(사물인터넷)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큰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보안 및 무선통신망의 안전성 강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IT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생활에 정보보호산업 기술이 포함되어 응용되고 있어 국내 정보보호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보보호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적인 필요성, 수요자 투자 확대 등의 환경과 맞물려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보안트렌드에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보호 기업의 성장세 또한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2020년 1분기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재택 및 원격 근무의 활성화로 보안 솔루션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단말기의 접속 허용, 내부 중요 문서 유출 가능성, 원격화상회의솔루션의 해킹 이슈로 당사가 보유한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 경기 변동의 특성

정보보호산업은 IT예산 내 배정된 정보보호예산 비율, 그 집행 시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산업은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예산 투자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경기 변동과 일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랜섬웨어,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형태의 보안위협이 증가하며 이러한 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20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기업부문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불황 속에서도 약 9,000개의 응답기업 중 78.1%는 정보보호 예산을 유지하고, 19.5%는 증액하겠다고 답한 바있습니다. 기업이 정보보호예산을 탄력적인 형태가 아닌 기본 인프라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 제10조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를 통해 공공기관등이 정보보호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어 기관과 기업의 관련 예산은 점진적으로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경쟁요소

보안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정보보호시장은 선두기업이 해당 시장의 기술과 영업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는 주력 사업분야인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Network Access Control)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1,600여개의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하며 확보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리 및 운영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에 당사가 보유한 기술적 우위를 뛰어넘을 만한 기존 경쟁업체의 약진이나 신규업체의 진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019년 OT(운영기술), 클라우드 등 거대한 IT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일부 외산 NAC 업체의 인수합병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한 ATC(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경계 기반의 블랙클라우드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선도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사가 새롭게 진출한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및 대응(EDR: Endpoint Detection & Response) 솔루션 분야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수의 해외기업이 국내 시장에 앞다투어 EDR을 출시했습니다. 2018년에는 다수의 국내 기업이 EDR 솔루션 출시를 예고하였으며 2019년 대형 고객사의 EDR 도입 및 구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EDR 시장이 개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 부터 NH농협, 국세청, 신한금융그룹 등 대형 공공/금융기관을 필두로 EDR 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EDR 도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EDR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업 경험, 기술우위, 가격, 사후대응 등 다양한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핵심 기술력, 최다 고객사(레퍼런스)보유 및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국내 업무 환경의 이해 등을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국내 최초로 메이저 업그레이드 된 EDR Insights E v2.0을 출시 하였고 '한국도로공사',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등 공공, 제조업의 대형 고객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전 산업군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정치적 환경, IT 인프라 발달, 우수한 단말 보급률로 인해 보안공격의 주요한 통로와 공격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다수의 솔루션을 출시하고 있고, 해외 기업 역시 한국을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전반적인 국내 정보보호시장 내 경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자금조달의 특성

당사는 보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 및 공급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대량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단기적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자나 사채발행을 통한 일시적인 대규모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국가는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정보보호 산업진흥을 위해 2016년 6월 제1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K-ICT 시큐리티 2020)을 수립, 발표하면서 창업활성화를 통한 글로벌경쟁력 강화, 투자확대 및 신시장 창출, 내수위주에서 글로벌진출로 시장확대,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키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은 개인과 기업, 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통해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CCTV를 통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논란 등 새로운 위협을 해소하고자 '개인영상정보보호법' 등의 신규 법안이 발의 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이러한 신규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CCTV 관리 및 영상정보 암호화, 영상정보 접근통제 등의 유관정보보안 분야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서는 지능화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전략 및 13대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4대 전략 중 신뢰중심의 지능화 기반 구축분야 달성 과제로 지능형 보안기술의 개발, 보급 및 정보보호 예방, 대응능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안전 국가 기반 확충 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 관련규제]

기 관	관련 법령	내 용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 분석 평가방법 상세 가이드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네트워크 접근통제 · 단말기 보안 무결성 확보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보호 관리지침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접근통제 장치 확대 및 시스템 접속시간 제한 (제4조9항 및 제10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 ·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 · 금융권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 업무 모범규준	· 업무담당자 이외의 자가 단말기를 무단 조작 못하도록 단말기별 취급자 및 비밀번호 지정 ·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 개인별 부여, 전산자료는 사용자 업무별로 접근권한 통제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한국인터넷 진흥원	·[ISMS 인증 관련] 13개 인증항목 중 5개 항목 충족	· 외부자 보안/정보자산 분류/정보자산 현황 조사 및 최신유지/물리적보안/접근통제/운용보안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2005년 설립하여 기업과 기관의 내부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온 종합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Insights), PC 보안 수준 진단 솔루션(GPI)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국내 보안 기업 중 최초로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 '지니안 NAC'를 출시했습니다. 내부 네트워크를 접속하는 단말 관리의 필요성을 시장에 주지 시키며 MS, 시만텍, 시스코 등 해외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정사업본부, 공군, 해군 등의 대규모 네트워크 접근제어 사업을 수주하며 국내 NAC 시장 1위로 자리잡았습니다.

국내 아이폰 출시를 시작으로 2010년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개인이 보유한 단말을 업무에 활용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당사는 발 빠르게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을 BYOD 환경에 최적화 된 보안 솔루션으로 포지셔닝하고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관리가 가능한 컨셉을 선보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단말을 사용하는 내부 사용자의 보안의식의 강화를 위한 보안정책 준수관리 솔루션 내 PC지키미 기술을 이전 받아 공공기관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을 위한 서비스에 착수했습니다.

당사의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약 40여개의 보안제품과 연동을 완료해 수요자의 환경에 맞게 조직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내부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입니다. 국내시장에 진출한 해외 대형 벤더와의 공동 세일즈 등 협력모델구축을 위해 팔로알토, 트렌드마이크로, 파이어아이 등과 글로벌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하며 보안 에코 시스템 구축에 앞장섰습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해 1월 미국 동부 보스톤 메사추세츠에 현지 법인 GENIANS USA, INC를 설립하고, 클라우드 네트워크 접근제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북미, 유럽 및 아시아의 주요 거점시장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진출했으며 전통적인 NAC 벤더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제공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미국 'RSA Conference', 유럽 ‘Infosecurity’, 싱가포르 'Cloud & Cyber Security Expo ' 등에 참가해 현지 마케팅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멕시코, 프랑스, UAE, 말레이시아 등 32개국 37개의 파트너와 현지 유통을 위한 계약을 마쳤습니다. 특히, 북미에서 국내 NAC 업체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NAC 고객사를 확보하였고 동남아 시장에서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 시장에서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2020년 12월 지니언스 미국법인은 세계 IT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실리콘밸리로 소재지를 이전하여 글로벌의 중심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초 당사는 보유중인 단말 분석과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 솔루션(EDR)을 출시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 내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

해 시장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안랩 등 다수의 국내 보안업체가 유사제품을 개발, 출시하였으며 다수의 외산 동종 제품 역시 출시되어 경쟁이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나 이는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가능성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사는 기존 NAC 고객에 대한 교차판매(Cross Sales)를통하여 빠른 시장 침투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레드스톤소프트 등 핵심기술을 보유한 유관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술을 내재화하여 제품경쟁력 확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8년 GS(Good Software)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9년조달 자격을 획득하여 관련제품 최초로 조달제품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처음 진행된 금융권 최초 EDR 사업(미래에셋생명보험 행위기반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하였으며 2019년 최대 사업인 NH농협의 EDR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확대가 기대되는 EDR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도 기획재정부, 하이트진로, NH농협을 비롯해 정부부처와 및 산업별 대표 기업 및 기관에 골고루 공급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는 확보한 국내 고객 수, 네트워크 접근제어 분야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때 국내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출시 초기부터 해외 기업을 포함한 국내 보안기업과 지속적으로 경쟁하였으며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춘 선두기업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지니안 NAC'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전체 NAC 제품의 2018년, 2019년 매출 중 약 70%를 점유하였으며 2020년에도 점유율이 72%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유율은 조달 시장 내 NAC 매출 2위 기업 대비 약 6배 가량의 매출 점유율로, 압도적인 시장 선도 제품임이 입증되었습니다.

EDR 제품인 '지니안 인사이츠 E'는 현재 국내 초기시장으로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백신, 지능형 위협탐지 및 대응(APT) 등 다양한 솔루션이 혼재되어 시장규모 및 점유율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문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2018년 보고서 'Market Guide for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Solutions' 에서 9개의 EDR 개발사가 시장의 약 83%를 점유하고 있다고 명시하여 EDR 선두그룹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당사를 포함하여 5개 정도의 EDR 업체가 관련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어 선두그룹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사는 이러한 시장의 배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국내 EDR 시장 내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정보보호산업은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해 새로운 보안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을 창출하게 됩니다. 2000년대 후반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서비스 거부 공격)로 인한 대형 보안사고가 발생하며 관련 대응 시장이 성장했듯이 최근에는 랜섬웨어, 가상화폐 해킹 대응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른 것은 사물인터넷(IoT) 공격입니다. 글로벌 IT기업 시스코는 2021년까지 271억개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며, 2년간 매일 1000만

개의 새로운 기기가 연결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IoT 기기는 소형 의료기기에서 자동차 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고 PC나 스마트폰과 달리 통신이 일어나는 IT기기로 인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말부터 1년여간 IoT 공격 분야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손꼽힌 미라이봇넷은바로 이러한 IoT 기기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공격입니다. CCTV와 공유기 등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IoT 기기가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음을 이용해 대규모의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시장도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기존 보안기술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의 집적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자사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 기업만이 변화하는 정보보호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물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며 다양한 단말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며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당사가 보유한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장 또한 새롭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일부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정보보안분야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랜섬웨어, 가상화폐, IoT를 활용한 공격을 통해 개인의 일상생활이 위협받을 수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IT환경 변화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보호산업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기술 투자를 하는 기업만이 변화하는 정보보호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G 기술과 더불어 초연결 시대를 이끌 10대 핵심산업에 정보보안이 포함된 것은 산업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국내 선제적인 기술 확보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정보보안 기업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선보일 업그레이드 제품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초 기존 보유한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여 IoT 및 클라우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신종, 변종 악성코드 탐지를 위해 지난해 1년여간 개발한 딥러닝 기반 머신러닝 엔진을 탑재해 '지니안 인사이츠 E v1.5'를 출시했습니다. 전통적인 백신의 악성코드 탐지율이 60%대에 머물러 있음에 반해, 머신러닝 엔진을 탑재한 당사의 EDR 제품은 약 99.5%의 탐지율을 나타내고 있어 알려지지 않은 위협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DR 분야는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의 2017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2020년까지 2015년 대비 약 6배 성장한 15억 5천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현재 보안시장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해당분야 국내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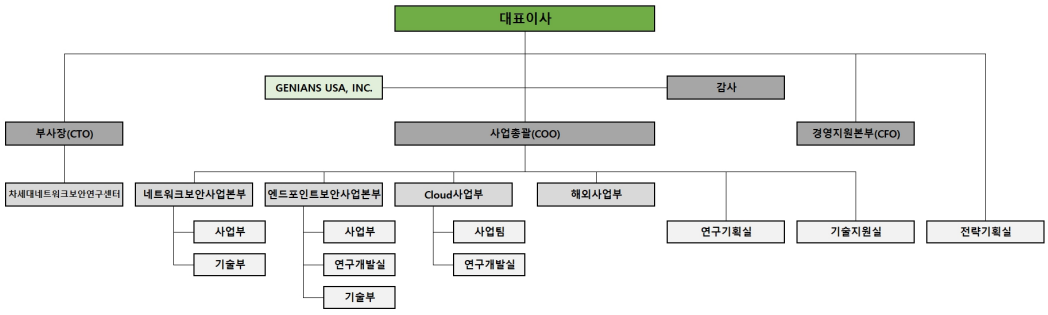
또한, 기존의 NAC 제품을 IoT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풀 오케스트레이션 보안 플랫폼(Full Orchestration Security Platform)' 컨셉의 '지니안 NAC 5.0"을 공식 출시하며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시작으로 고객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단말과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가시성을 애플리케이션과 악성코드 감염 여부까지 확장해 관리할 수 있으며, 단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IoT 환경에서 체계적인 단말 관리를 위해 '단말 플랫폼 인텔리전스(DPI: Device Platform Intelligence)를 통한 IT플랫폼 정보와 함께 OT(운영기술: Operational Technology) 산업군의 플랫폼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내 클라우드 환경 도입이 대폭 확대될 것에 대비해, '비인가 기기 접근 통제 및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기반(SDP: Software-Defined Perimeter)' 기술을 ATC(Advanced Technology Center,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종료를 통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원격지 재택근무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 역할 및 사용자에 따라 클라우드 자원접근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당해년도에 사업화 준비에 착수하여 가까운 미래에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 입니다.

해외 사업에서America 및EU는Cloud 서비스 기반의NAC를 중심으로APAC 및 MEA는 전통적인On-Premise 방식의NAC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마케팅, 파트너/고객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2개국 37개의 파트너와 현지 유통을 위한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 외 AWS 마켓플레이스에 제품을 등록하는 등 판매경로 다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COVID-19 Pandemic상황에서도 필리핀 전력망 공급 기업, 태국 군 관계기관, 중동 금융기관, 대만 제조업체 등 ASIA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고객사가 늘어 나고 있으며 북미에서는 지니언스가 보유하고 있는 DPI(device Platform Intelligence)기술을 별도 상품화하여 판매를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니언스는 국내 NAC 벤더 중 유일하게 가트너가 발표한 '2020 네트워크 접근제어 마켓가이드'의 대표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니안 NAC가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사는 당해 6월, 해외에서 먼저 출시한 Cloud 서비스 기반의 NAC를 국내시장에도 동일하게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NAC 도입 및 구축/운영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있는 제품으로 이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시장 위주의 NAC 사업 영역을 중소기업 시장(SMB) 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 1호 의안 : 제 16 기(2020.01.01~2020.12.31) 개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6 기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15 기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지니언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16 (당) 기말		제 15 (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31,960,114,676		27,953,327,572
현금및현금성자산	3,121,519,195		3,605,272,414	
단기금융상품	17,268,896,850		11,486,307,1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526,013,009	
매출채권	7,994,230,085		8,373,375,480	
기타수취채권	506,120,828		373,964,427	
재고자산	1,024,952,395		1,073,844,338	
당기법인세자산	-		16,995,470	
기타유동자산	263,474,215		237,555,33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780,921,108		260,000,000	
Ⅱ. 비유동자산		12,161,463,742		14,764,413,866
장기금융상품	-		1,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40,062,787		295,825,37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06,922,580		1,205,800,000	
관계기업투자주식	25,389,122		-	
투자부동산	-		1,807,780,114	
유형자산	5,491,176,011		5,751,312,655	
무형자산	3,543,907,774		3,784,291,692	
기타수취채권	72,439,820		107,733,782	
이연법인세자산	1,681,565,648		811,670,249	
자 산 총 계		44,121,578,418		42,717,741,438
부 채				

Ⅰ. 유동부채		5,982,339,752		6,446,400,898
매입채무	1,850,234,745		2,207,584,220	
미지급금	479,365,734		709,016,025	
기타지급채무	1,032,107,121		2,284,795,727	
충당부채	82,149,203		63,752,323	
당기법인세부채	69,685,459		80,490,790	
기타유동부채	2,468,797,490		1,100,761,813	
Ⅱ. 비유동부채		3,212,087,155		2,412,325,161
장기미지급금	128,754,899		113,604,102	
기타지급채무	1,322,802,250		251,490,911	
확정급여부채	4,791,200		634,422,400	
기타비유동부채	1,755,738,806		1,412,807,748	
부 채 총 계		9,194,426,907		8,858,726,059
자 본				
Ⅰ. 자본금		4,722,300,000		4,722,300,000
Ⅱ. 자본잉여금		13,267,199,782		13,267,199,782
Ⅲ. 기타자본		(6,590,384,140)		(4,785,726,675)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235,106,242		535,730,015
Ⅴ.매각예정자산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6,800,000
Ⅵ.이익잉여금		23,292,929,627		20,072,712,257
자 본 총 계		34,927,151,511		33,859,015,37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4,121,578,418		42,717,741,438

- 연결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5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니언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16 (당) 기	제 15 (전) 기
Ⅰ. 매출액	26,814,488,784	24,925,857,890
Ⅱ. 매출원가	(10,999,869,107)	(10,210,419,382)
Ⅲ. 매출총이익	15,814,619,677	14,715,438,508
판매비와관리비	(13,222,947,037)	(12,420,603,283)
Ⅳ. 영업이익	2,591,672,640	2,294,835,225
지분법손익	(31,465,336)	-
금융수익	300,308,245	350,463,644
금융비용	(49,064,279)	(6,145,947)
기타영업외수익	30,408,647	10,800,920
기타영업외비용	(45,774,453)	(21,261,188)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796,085,464	2,628,692,654
법인세비용	628,337,652	478,277,747
Ⅵ. 당기순이익	3,424,423,116	3,106,970,401

Ⅶ. 법인세차감후 기타포괄손익	(551,629,519)	79,344,19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해외사업환산이익	(65,338,794)	1,116,255
지분법자본변동	(2,160,59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51,005,746)	(501,624,056)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233,124,388)	579,852,000
Ⅷ. 총포괄이익	2,872,793,597	3,186,314,600
Ⅸ. 당기순이익의 귀속	3,424,423,116	3,106,970,401
1.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3,424,423,116	3,106,970,401
2. 비지배지분	-	-
Ⅹ. 총포괄이익의 귀속	2,872,793,597	3,186,314,600
1.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2,872,793,597	3,186,314,600
2. 비지배지분	-	-
Ⅺ.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394	343
희석주당순이익	386	336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1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5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니언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						비지배지분	총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합 계		
전기초(2019.1.1)	4,722,300,000	13,267,199,782	(3,441,636,380)	1,561,760	17,467,365,912	32,016,791,074	-	32,016,791,074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3,106,970,401	3,106,970,401	-	3,106,970,401
해외사업환산이익	-	-	-	1,116,255	-	1,116,255	-	1,116,25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501,624,056)	(501,624,056)	-	(501,624,05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579,852,000	-	579,852,000	-	579,852,000
총포괄손익 합계	-	-	-	580,968,255	2,605,346,345	3,186,314,600	-	3,186,314,6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자기주식의 취득	-	-	(1,344,090,295)	-	-	(1,344,090,295)	-	(1,344,090,295)
전기말(2019.12.31)	4,722,300,000	13,267,199,782	(4,785,726,675)	582,530,015	20,072,712,257	33,859,015,379	-	33,859,015,379

당기초(2020.1.1)	4,722,300,000	13,267,199,782	(4,785,726,675)	582,530,015	20,072,712,257	33,859,015,379	-	33,859,015,37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3,424,423,116	3,424,423,116	-	3,424,423,11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279,924,388)	46,800,000	(233,124,388)	-	(233,124,388)
해외사업환산이익	-	-	-	(65,338,794)	-	(65,338,794)	-	(65,338,79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251,005,746)	(251,005,746)	-	(251,005,746)
지분법자본변동	-	-	-	(2,160,591)	-	(2,160,591)		(2,160,591)
총포괄손익 합계	-	-	-	(347,423,773)	3,220,217,370	2,872,793,597	-	2,872,793,597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자기주식거래에 따른 증감	-	-	(1,510,730,354)	-	-	(1,510,730,354)	-	(1,510,730,354)
주식선택권의 행사	-	-	(293,927,111)	-	-	(293,927,111)		(293,927,11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	(1,804,657,465)	-	-	(1,804,657,465)	-	(1,804,657,465)
당기말(2020.12.31)	4,722,300,000	13,267,199,782	(6,590,384,140)	235,106,242	23,292,929,627	34,927,151,511	-	34,927,151,511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5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니언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16 (당) 기		제 15 (전) 기	
I. 영업활동현금흐름		3,924,297,636		1,827,707,781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809,915,487		1,330,847,302	
2. 이자의 수취	246,374,600		388,265,481	
3. 이자의 지급	(8,878,952)		(6,145,947)	
4. 법인세의 납부	(123,113,499)		114,740,945	
II. 투자활동현금흐름		(2,269,275,505)		(835,906,094)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6,931,388,366		22,508,513,744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9,778,211,906		21,941,469,900	
단기대여금의 감소	5,000,000		-	
유형자산의 처분	20,692,177		189,93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16,684,884,283		506,715,109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182,000,000		-	
선수금의 증가	250,000,000		-	
보증금의 감소	7,000,000		41,097,000	
정부보조금의 수령	3,600,000		19,041,801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9,200,663,871)		(23,344,419,838)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4,568,896,850		18,486,307,1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1,3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14,287,832,617		2,798,183,170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59,624,447		-	
유형자산의 취득	140,022,139		425,639,579	
무형자산의 취득	20,680,000		256,130,000	
보증금의 증가	3,607,818		48,159,989	
단기대여금의 증가	120,000,000		30,000,000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2,105,193,921)		(1,335,364,781)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00,000,000	
임대보증금의 증가	-		1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105,193,921)		(1,435,364,781)	
자기주식의 취득	1,804,657,465		1,344,090,295	
리스부채 원금의 지급	300,536,456		91,274,486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33,581,429)		(413,453)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I+II+III+IV)		(483,753,219)		(343,976,547)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605,272,414		3,949,248,961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V+VI)		3,121,519,195		3,605,272,414

- 연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연 결 이 익 잉 여 금 처 리 계 산 서(안)>

제 16 기 (2020. 01. 01 부터 2020. 12. 31 까지)

제 15 기 (2019. 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단위 : 원)

지니언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과 목	제 16 (당) 기		제 15 (전) 기	
	처분예정일 : 2021년 03월 23일		처분확정일 : 2020년 3월 24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	23,233,880,627	-	20,013,663,257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0,013,663,257	-	17,408,316,912	-
보험수리적손익	(251,005,746)	-	(501,624,056)	-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자산평가손익	46,800,000		-	-
당기순이익	3,424,423,116	-	3,106,970,401	-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	-	-	-
III.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23,233,880,627	-	20,013,663,257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5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니언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회사의 개요
(1)지배기업의 개요
지니언스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2005년 1월에 설립된 네트워크 접근제어(NAC)솔루션 개발업체로서 내부보안 전문 기업이며, 본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평촌역 하이필드 지식산업센터 A동 1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주식은 2017년 8월 2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보통주	지분율	보통주	지분율
이동범	2,863,699주	30.32%	2,863,699주	30.32%
자기주식	887,676주	9.40%	515,200주	5.46%
프리미어Growth-M&A투자조합	597,652주	6.33%	870,980주	9.22%
기타	5,095,573주	53.95%	5,194,721주	55.00%
합 계	9,444,600주	100.00%	9,444,600주	100.00%

(2)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업 종	소재지	결산일	지분율
GENIANS USA, INC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제공	미국	12월 31일	100%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단위 :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손실
GENIANS USA, INC	828,688	95,447	450,795	(592,193)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손실
GENIANS USA, INC	381,248	25,427	53,565	(797,277)

(4)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에 대한 중요한 비지배지분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2)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3 : 유・무형자산의 내용연수
- 주석 5 : 금융상품의 분류
- 주석 16 : 영업권 손상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3 :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 주석 20 : 리스
- 주석 22 : 확정급여부채의 측정
- 주석 23 : 충당부채의 인식과 측정
- 주석 33 :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주석 39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③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 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험관리 주석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기준서
1) 당기에 신규로 적용된 제・개정 기준서
연결실체는 2020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의 정의(개정)
동 개정사항은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투입물과 과정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이 아닌지 여부를 간략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선택적 집중테스트에서 만약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가 실질적으로 식별가능한 단일자산 또는 식별가능한 유사한 자산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는 사업이 아닙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의 사업결합에 적용하며, 모든 사업결합과 자산취득거래에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동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의 표시' 및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동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준서 제1001호의 '중요성'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고, 기준서 제1008호의 '중요성'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기준서에 따르면, '중요성'의 정의가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로 개정되어 정보와 이용자 및 해당 정보의 영향의 범위가 보다 명확화 되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동 개정사항은 현행 이자율 지표의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진행 중인 이자율 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기 이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에서 도입한 예외에 해당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동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

편법
동 개정사항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을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할 때, 리스이용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하여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을 조기도입하였습니다.
동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음
- 리스료 감면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예를 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1년 5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1년 5월 30일 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
-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연결실체는 당기부터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119 Thoreau Way 0614 Lawrence, MA 01843 에 소재한 건물에 대한 리스료를 할인받았습니다. 할인받은 리스료 2,221천원은 부(-)의 변동리스료로 사용권자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3.1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연결실체는 리스료의 면제로 소멸된 리스부채의 일부를 제거하였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제1008호 중요성의 정의(개정)
동 개정사항은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는 중요성의 새로운 정의를 제공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중요성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무제표에서의 정보의 성격 또는 규모에 의존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약 주요 재무정보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하다면 해당 정보의 오류는 중요합니다. 동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 에 대한 참조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과 함께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른 모든 개정사항을 동 개정사항 보다 먼저 적용하거나 동 개정사항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만 동 개정사항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적용사례에만 관련되므로, 시행일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 측정과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을 일치시키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상기에서 설명한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합니다.
①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②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③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연결실체의 최고영업의사결정권자는 지배기업의 이사회이며, 연결실체의 특정 구성단위에 대해 구분된 재무정보를 보고받거나 검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재무제표에는 영업부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전체수준에서의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는 주석 4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연결

①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②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④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과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기업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기업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기업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기업이 적용하는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⑤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⑥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⑦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기타불입자본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며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연결실체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10,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37 참조)

(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원재료는 선입선출법, 제품은 개별법으로 결정되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판매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완성까지 예상되는 추가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6)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

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가)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실체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실체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나) 후속측정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상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실체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조건인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금융삼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대신용손실(전체기

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2)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법적인 권리가 없거나 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합니다.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예를 들어 금융부채)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특성・위험이 주계약의 특성・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

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기타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40년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시설장치	5년
기계장치	5년
사용권자산	1~4년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무형자산
연결실체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예측 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 분	내용년수

산업재산권	10년
소프트웨어	5년
개발비	5년
기술무형자산	8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40년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변경효과에 대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사용 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실체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자산관련 보조금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수익관련 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4)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

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해고급여
연결실체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다. 해고급여의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외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연결실체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수익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가) 재화의 판매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네트워크 접근제어(NAC)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매출은 총판매출과 고객에 대한 직접 매출, 조달매출로 구분되며, 총판매출은 고객에게 제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고객에 대한 직접 매출과 조달매출은 고객에게 제품이 인도되고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한편, 보증 계약에 따라 결함이 있는 제품을 수리하거나 대체하여야 할 의무는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용역
연결실체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여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계약 조건을 분석한 결과,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고 판단되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18)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장기금융상품처분이익,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에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종속기업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및 세액공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 등이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 등이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가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추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6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15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지니언스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16 (당) 기말	제 15 (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31,162,042,533		27,603,218,496
현금및현금성자산	2,478,605,753		3,292,333,882	
단기금융상품	17,268,896,850		11,486,307,1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526,013,009	
매출채권	7,861,327,632		8,358,306,018	
기타수취채권	506,120,828		373,964,427	
재고자산	1,022,312,395		1,073,844,338	
당기법인세자산	-		16,995,470	
기타유동자산	243,857,967		215,454,25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780,921,108		260,000,000	
Ⅱ. 비유동자산		14,852,296,183		16,929,439,840
장기금융상품	-		1,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40,062,787		295,825,37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06,922,580		1,205,800,000	
종속기업투자주식	3,046,632,931		2,521,863,505	
관계기업투자주식	59,624,447		-	
투자부동산	-		1,807,780,114	
유형자산	5,470,397,412		5,663,596,182	
무형자산	3,543,907,774		3,784,291,692	
기타수취채권	65,854,700		102,303,700	
이연법인세자산	1,318,893,552		547,979,273	
자 산 총 계		46,014,338,716		44,532,658,336
부 채				
Ⅰ. 유동부채		5,886,892,420		6,362,553,676
매입채무	1,850,234,745		2,207,584,220	
미지급금	476,765,414		709,016,025	
기타지급채무	1,012,019,630		2,220,190,944	
충당부채	82,149,203		63,752,323	
당기법인세부채	69,685,459		80,490,790	
기타유동부채	2,396,037,969		1,081,519,374	
Ⅱ. 비유동부채		3,212,087,155		2,406,938,791
장기미지급금	128,754,899		113,604,102	
기타지급채무	1,322,802,250		246,104,541	
확정급여부채	4,791,200		634,422,400	
기타비유동부채	1,755,738,806		1,412,807,748	
부 채 총 계		9,098,979,575		8,769,492,467
자 본				
Ⅰ. 자본금		4,722,300,000		4,722,300,000
Ⅱ. 자본잉여금		13,267,199,782		13,267,199,782
Ⅲ. 기타자본		(6,909,888,589)		(5,105,231,124)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299,927,612		533,052,000
Ⅴ.매각예정자산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6,800,000
Ⅵ.이익잉여금		25,535,820,336		22,299,045,211

자 본 총 계		36,915,359,141		35,763,165,86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6,014,338,716		44,532,658,336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5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니언스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16 (당) 기	제 15 (전) 기
Ⅰ. 매출액	26,466,394,936	24,874,818,498
Ⅱ. 매출원가	(11,001,356,944)	(10,210,345,903)
Ⅲ. 매출총이익	15,465,037,992	14,664,472,595
판매비와관리비	(12,254,418,235)	(11,492,513,690)
Ⅳ. 영업이익	3,210,619,757	3,171,958,905
금융수익	300,308,245	356,796,511
금융비용	(48,218,836)	(5,046,575)
기타영업외수익	5,060,123	3,322,680
기타영업외비용	(531,849,535)	(523,214,683)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935,919,754	3,003,816,838
법인세비용	505,061,117	210,168,480
Ⅵ. 당기순이익	3,440,980,871	3,213,985,318
Ⅶ. 법인세차감후 기타포괄손익	(484,130,134)	78,227,94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51,005,746)	(501,624,05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233,124,388)	579,852,000
Ⅷ. 총포괄이익	2,956,850,737	3,292,213,262
Ⅸ.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396	355
희석주당순이익	388	348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1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5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니언스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전기초(2019.1.1)	4,722,300,000	13,267,199,782	(3,441,636,380)	-	19,586,683,949	34,134,547,351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3,213,985,318	3,213,985,31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501,624,056)	(501,624,05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579,852,000	-	579,852,000
총포괄손익 합계	-	-	-	579,852,000	2,712,361,262	3,292,213,26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	(1,344,090,295)	-	-	(1,344,090,295)
사업결합	-	-	(319,504,449)	-	-	(319,504,449)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	(1,663,594,744)	-	-	(1,663,594,744)
전기말(2019.12.31)	4,722,300,000	13,267,199,782	(5,105,231,124)	579,852,000	22,299,045,211	35,763,165,869
당기초(2020.1.1)	4,722,300,000	13,267,199,782	(5,105,231,124)	579,852,000	22,299,045,211	35,763,165,86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3,440,980,871	3,440,980,87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279,924,388)	46,800,000	(233,124,38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251,005,746)	(251,005,746)
총포괄손익 합계	-	-	-	(279,924,388)	3,236,775,125	2,956,850,737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자기주식거래에 따른 증감	-	-	(1,510,730,354)	-	-	(1,510,730,354)
주식선택권의 행사	-	-	(293,927,111)	-	-	(293,927,11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	(1,804,657,465)	-	-	(1,804,657,465)
당기말(2020.12.31)	4,722,300,000	13,267,199,782	(6,909,888,589)	299,927,612	25,535,820,336	36,915,359,141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1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5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니언스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16 (당) 기		제 15 (전) 기	
I. 영업활동현금흐름		4,533,234,822		2,609,795,291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4,418,007,230		2,111,843,241	
2. 이자의 수취	246,374,600		388,259,170	
3. 이자의 지급	(8,033,509)		(5,046,575)	
4. 법인세의 납부	(123,113,499)		114,739,455	
II. 투자활동현금흐름		(3,300,205,019)		(1,368,211,38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6,910,696,189		22,495,530,319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9,778,211,906		21,941,469,900	
유형자산의 처분	-		189,93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16,684,884,283		506,715,109	
단기대여금의 감소	5,000,00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182,000,000		-	
선수금의 증가	250,000,000		-	
보증금의 감소	7,000,000		26,847,000	
정부보조금의 수령	3,600,000		19,041,801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	-		1,266,575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0,210,901,208)		(23,863,741,699)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4,568,896,850		18,486,307,1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1,3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14,287,832,617		2,798,183,17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011,845,155		511,434,000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59,624,447		-	
유형자산의 취득	140,022,139		412,362,429	
무형자산의 취득	20,680,000		256,130,000	
보증금의 증가	2,000,000		44,325,000	
단기대여금의 증가	120,000,000		55,000,000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2,046,757,932)		(1,308,087,57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00,000,000	
임대보증금의 증가	-		1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046,757,932)		(1,408,087,570)	
자기주식의 취득	1,804,657,465		1,344,090,295	
리스부채 원금의 지급	242,100,467		63,997,275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I+II+III+IV)		(813,728,129)		(66,503,659)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292,333,882		3,358,837,541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V+VI)		2,478,605,753		3,292,333,882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 익 잉 여 금 처 리 계 산 서(안)>

제 16 기 (2020. 01. 01 부터 2020. 12. 31 까지)
제 15 기 (2019. 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단위 : 원)

지니언스 주식회사

과 목	제 16 (당) 기		제 15 (전) 기	
	처분예정일 : 2021년 03월 23일		처분확정일 : 2020년 3월 24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	25,476,771,336	-	22,239,996,21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2,239,996,211	-	19,527,634,949	-
보험수리적손익	(251,005,746)	-	(501,624,056)	-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자산평가손익	46,800,000			
당기순이익	3,440,980,871	-	3,213,985,318	-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	-	-	-
III.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25,476,771,336,	-	22,239,996,211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5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니언스 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지니언스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05년 1월에 설립된 네트워크 접근제어(NAC)솔루션 개발업체로서 내부보안 전문 기업이며, 본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평촌역 하이필드 지식산업센터 A동 1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주식은 2017년 8월 2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보통주	지분율	보통주	지분율
이동범	2,863,699주	30.32%	2,863,699주	30.32%
자기주식	887,676주	9.40%	515,200주	5.46%
프리미어Growth-M&A투자조합	597,652주	6.33%	870,980주	9.22%
기타	5,095,573주	53.95%	5,194,721주	55.00%
합 계	9,444,600주	100.00%	9,444,600주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원가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

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3: 유・무형자산의 내용연수
- 주석 5: 금융상품의 분류
- 주석 16: 영업권 손상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4: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 주석 20: 리스
- 주석 22: 확정급여부채의 측정
- 주석 23: 충당부채의 인식과 측정
- 주석 33: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주석 39: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③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험관리 주석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기준서

1) 당기에 신규로 적용된 제・개정 기준서
회사는 2020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의 정의(개정)
동 개정사항은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투입물과 과정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이 아닌지 여부를 간략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선택적 집중테스트에서 만약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가 실질적으로 식별가능한 단일자산 또는 식별가능한 유사한 자산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는 사업이 아닙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의 사업결합에 적용하며, 모든 사업결합과 자산취득거래에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의 표시' 및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동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준서 제1001호의 '중요성'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고, 기준서 제1008호의 '중요성'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기준서에 따르면, '중요성'의 정의가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로 개정되어 정보와 이용자 및 해당 정보의 영향의 범위가 보다 명확화 되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동 개정사항은 현행 이자율 지표의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진행 중인 이자율 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기 이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에서 도입한 예외에 해당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동 개정사항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을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할 때, 리스이용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하여 당사는 동 개정사항을 조기도입 하였습니다.
동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음
- 리스료 감면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예를 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1년 5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1년 5월 30일 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
-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당사는 당기부터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제1008호 중요성의 정의(개정)
동 개정사항은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는 중요성의 새로운 정의를 제공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중요성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무제표에서의 정보의 성격 또는 규모에 의존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약 주요 재무정보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하다면 해당 정보의 오류는 중요합니다.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개정)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과 함께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른 모든 개정사항을 동 개정사항 보다 먼저 적용하거나 동 개정사항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만 동 개정사항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적용사례에만 관련되므로, 시행일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 측정과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을 일치시키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상기에서 설명한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합니다.
①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②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③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당사의 최고영업의사결정권자는 당사의 이사회이며, 당사의 특정 구성단위에 대해 구분된 재무정보를 보고받거나 검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재무제표에는 영업부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전체수준에서의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는 주석 4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며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11,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38 참조)

(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원재료는 선입선출법, 제품은 개별법으로 결정되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판매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완성까지 예상되는 추가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6)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가)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나) 후속측정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상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조건인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금융삼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2)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법적인 권리가 없거나 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

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합니다.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예를 들어 금융부채)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특성・위험이 주계약의 특성・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기타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40년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시설장치	5년
기계장치	5년
사용권자산	1~4년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

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예측 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 분	내용년수
산업재산권	10년
소프트웨어	5년
개발비	5년
기술무형자산	8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40년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변경효과에 대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사용 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자산관련 보조금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수익관련 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측정하고 있습니다.

(14)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해고급여
당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다. 해고급여의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외화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당사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수익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

습니다.

(가) 재화의 판매
당사는 고객에게 네트워크 접근제어(NAC)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총판매출과 고객에 대한 직접 매출, 조달매출로 구분되며, 총판매출은 고객에게 제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고객에 대한 직접 매출과 조달매출은 고객에게 제품이 인도되고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한편, 보증 계약에 따라 결함이 있는 제품을 수리하거나 대체하여야 할 의무는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용역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여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계약 조건을 분석한 결과,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고 판단되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19)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장기금융상품처분이익,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에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종속기업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및 세액공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 등이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 등이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가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추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3.(생략) 4.위 각호의 수출입업 5.부동산 임대업 6.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3.(현행과 동일) 4. 전자상거래 5. 정보통신공사업 6. 위 각호의 수출입업 7. 위 각호와 관련한 장비임대업 8. 부동산 임대업 9.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사업목적 추가
제8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수 있도록 함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제18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제47조(감사의 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④신설 ⑤신설	제47조(감사의 선임·해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제55조(이익배당) ① ~ ②(생략) ③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주석신설> ④(생략)	제55조(이익배당) ① ~ 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한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과 다른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④(현행과 같음)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설정할수 있도록 함 배당기준일 설정에 관한 주석 신설
제56조(분기배당) ① ~ ③(생략) ④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생략)	제56조(분기배당) ① ~ ③(생략) ④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⑤(현행과 같음)	분기배당에 대한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동석	1964.04.28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동석	지니언스(주) 부사장	2016.08 ~ 현재 2007.09 ~ 2016.06 2002.11 ~ 2007.08 2000.09 ~ 2002.10	지니언스(주) 부사장 엘지엔시스(주) (주)엘지씨엔에스 엘지전자(주)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동석 사내이사 후보자는 당사의 영업총괄 부사장을 역임하였고 정보통신, 보안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당사가 추진하는 신규 비즈니스 수행 및 당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1 년 03 월 08 일

보고자 : 이 동 석 (서명 또는 날인)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 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0)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2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0)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96백만원
최고한도액	1,2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 5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0백만원
최고한도액	2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1년 03월 15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인 2021년 3월 15일 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www.genians.c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 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코로나 19 (COVID 19) 관련 주총 참석 안내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들께서는 (특히, 감염지역 방문자 및 거주자 등 감염의심자) 주주총회 직접 참석 대신 비대면 의결권 행사(전자투표, 전자위임장)를 활용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주주총회 참석시 주주총회회장 입구에서 주주분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결과에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주주총회에 참석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만약,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하여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 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60조 제 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년 3월 13일 9시~2021년 3월 22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 제한용 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해당사항 없음